불교적으로 재구성한 '공생적 ESG 경영'



붓다 경영
선지 스님 지음
담앤북스 / 1만8천원

ESG 경영 궁극은 지속가능 사회 유지
불교경영 · ESG경영 이론적 종합 시도
공생적 ESG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종합적 노력의 공생적 ESG 경영이 지구촌 지속가능한 발전 바탕 될 것"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불교계가 추구해야 할 미래 또한 다르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래, 인류의 미래, 그 미래의 지속성을 의심한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인류의 (밝은) 미래는 그렇게 '숙제'가 되었다.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당연한 '시간의 문제'가 아닌, 노력하고 극복해야 맞이할 수 있는 추구의 차원인 것이다.

책 〈붓다 경영〉은 세계적인 흐름이 된 ESG 경영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사상적 근거를 살핀 '공생적 ESG 경영'을 제안한다. ESG 경영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이며, 이를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공생적 ESG 경영'이다. '공생(共生)'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

책에서는 불교적인 ESG 경영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불교의 경영 이론과 ESG 경영 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적 종합을 시도한다. 이어 한국 불교와 이웃 종교의 ESG 경영활동 실태를 점검해 각 종교들이 어떤 문제의식과 가치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가 공생적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인 선지 스님〈사진〉은 공생적 ESG 경영이 사회의 이익 증가와 행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ESG 경영이 전 세계적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신용평가회사들도 ESG 경영 여부를 기업 가치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법인 63%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했고,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ESG 경영을 내세운다. 이제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SG 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 불교계는 한 발 비켜 있어도 되는 것일까? 〈붓다 경영〉은 불교적 관점에서 ESG 경영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사상적 근거를 살펴 '공생적 ESG 경영'을 제안하는 책이다. '공생(共生)'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생적 ESG 경영'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과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불교적 경영 개념이다.

저자는 "ESG 경영 원리가 기업을 넘어 다양한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로 수용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교계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책은 크게 △불교적 ESG 경영 이론 도출 △한국 불교의 ESG 경영 실태 점검 △공생적 ESG 경영 방안 모색,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불교적인 ESG 경영 이론 도출'에서는 주요 경전에 나타나는 경영관과 현대적 관점의 불교적 경영관을 검토해 ESG 경영 이론을 불교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 〈대지도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생 사상을 체계화하고, 슈마허와 미야사카 유요 등의 저술에서 불교 경영관의 실천 원리를 찾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생적 ESG 경영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불교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한국 불교의 ESG 경영 실태 점검'에서는 한국 불교 각 종단과 단체, 대만 자제공덕회 등의 ESG 경영 활동 사례를 발굴, 분석해 그 의의와 한계를 살핀다. 또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의 ESG 경영 활동을 점검하고 비교해 과제를 도출한다.

△'공생적 ESG 경영 방안 모색'에서는 한국 불교 종단 차원에서 공생적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 자연환경과 수행환경 유지, 사회 분야에서는 동반성장과 다양성 및 양성평등 지향·지역사회 봉사, 지배 구조 분야에서는 윤리 경영 준수·사찰운영위원회 활성화·신도의 사찰 운영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한다. 이어 불교계의 공생적 ESG 경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해 실행을 뒷받침한다.

저자는 "공생적 ESG 경영은 환경운동, 대사회적 관계 형성, 갈마법과 대중공사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찰 운영의 투명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살 사상의 현대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며 "불교계의 공생적 ESG 경영 선언과 실천은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선불교 앞서 천태교학이…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브룩 지포린 지음, 정천구 옮김
운주사 / 3만원

천태불교는 인도의 전통과 중국의 전통이 만나 일궈낸 것으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철학이다. 책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대원불교 학술총서 26)은 선불교에 앞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정착시키고 토착화한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조명한 책이다.

중국 불교의 독창성을 이야기할 때, 선종 또는 선불교가 먼저 거론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 번성한 종파가 선종이고, 근대 이후에 서구에 먼저 알려지고 연구 대상이 된 것이 선불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선종 이전에 천태종이, 선불교에 앞서서는 천태교학이 먼저 중국적이면서 독창적인 철학을 마련하고 체계화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책은 바로 그 점을 입증하고자 탐구한 결과물이다.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천태불교의 존재론,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 이론들은 불교의 일반적인 개념들, 즉 괴로움, 연기법, 무아, 욕망, 공, 본각, 불성 등을 천태종 전통에서 독창적으로 적용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이론들은 〈법화경〉의 서사적 혁신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조정된 것들인데, 천태종 전통에서 그렇게 한 방식에 대한 해석도 제시한다.

책에서는 난해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천태종의 주요한 관념들과 선례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용어들로 설명하고 했다.

박재완 기자

관음신앙의 진면모를 본다



관음신앙 경전 연구
김방울 지음
운주사 / 2만3천원

〈관음신앙 경전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민중적인 불교신앙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다.

책은 그 답이 관음신앙이라고 보고 불자들이 가장 널리 신앙하고 있는 관음신앙의 전개 과정을 경전 성립의 맥락을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한다.

부처님은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정진하라고 부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은 마음의 의지처, 신앙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부처님에서 여러 보살로 확대됐으며, 그 보살들은 각기 자신의 영역과 영험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중 대승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가장 폭넓은 영역과 강력한 영험을 소유하고 있는 보살이 바로 관음보살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경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갈수록 관음신앙의 확산 또는 관음신앙에로의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수많은 관음보살상과 관음보살도의 제작 그리고 사찰 건축에서 관음사, 관음전, 원통전의 건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음신앙 현상을 뒷받침하는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책은 관음신앙의 원천은 불교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주목하여 관음신앙을 표방하는 경전들을 시대별로 추출하여 이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음신앙의 형성과 전개에 어떤 경전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있다.

이어서 관음신앙의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사바와 극락에 두루 머무르며 모든 중생의 고민과 고난을 해결해 준다는 관음보살의 위신과 권능은 무한대에 이르나, 그것이 역사적 표면에 드러난 모습은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관음신앙이 실제 간행된 경전들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전들에 나타난 관음보살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음신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관음신앙이 대다수 민중들의 보편적 신앙의 대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관음신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반가울 책이다.

박재완 기자



한국 관음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관음신앙 경전 연구
불자들이 가장 널리 신앙하고 있는 관음신앙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전개되어 갔는지를 경전 성립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김방울 저/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감동을 보살의 마음으로 승화시키다!
괜찮아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동훈과 지안을 둘러싼 후계동 사람들의 가슴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삶, 바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보살의 길이다.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병을 앓는 '유마거사'와 같은 보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범용 저/국판변형/228쪽/값 14,800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해와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